

	중국(상하이)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전택규 소장
		일시	2025. 6.

CEPA Insight

- 中 관세 충격에 4월 제조업 PMI 3개월 만에 '최저'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무역업체의 내수시장 개척 지원
- 중국 4월 경제 성적표 발표...거대 압력 속에서도 안정 성장
- 中 정부 내수 활성화 총력전, 건강·스포츠·외식·관광 분야 확대

■ 中 관세 충격에 4월 제조업 PMI 3개월 만에 '최저'

-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으로 수출, 기업의 기대 심리에 충격을 미치면서 4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다시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30일 차이신(财新)이 발표한 4월 차이신 중국 제조업 PMI 지수는 50.4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급감한 49로 두 달간의 확장세를 멈추고 다시 위축 국면으로 전환됐다.
- 4월 차이신 중국 제조업 PMI 각 지수는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다. 생산지수는 확장 구간에서 소폭 감소했고 신규 주문 지수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확장 구간을 유지해 공급이 수요보다 양호함을 나타냈다.
-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로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로 분기점(50) 이하까지 추락했다. 생산 경영 전망 지수는 확장 구간에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고용 지수의 경우, 지난달 소폭 확장세를 보이다 다시 위축 국면으로 전환 됐다.
- 제조업 가격은 여전히 침체 된 수준으로 원자재 구매가격지수는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고 출하가격지수도 위축 국면을 유지했다.

4月财新中国制造业PMI较前月下降0.8个百分点



※ 관련기사 링크: <https://pmi.caixin.com/m/2025-05-06/102316560.html>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무역업체의 내수시장 개척

- 최근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무역업체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百度) 산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AI 디지털 인플루언서'를 통한 24시간 라이브방송 서비스, 입점비 면제, 180일간 수수료 면제, 트래픽 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 텐센트(腾讯)·징둥(京东)·콰이서우(快手)·더우인(抖音) 등 플랫폼은 트래픽 지원,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
- 위챗스토어(微信小店)를 운영 중인 저장성 이우시 주방용품 업체는 트래픽 지원을 받은 당일 매출이 100만 위안을 넘겼고 8시간 만에 냄비 5천 세트를 완판한다. 플랫폼의 트래픽 지원으로 일부 단일 라이브방송은 최대 접속자 25만 명, 판매액 1,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 관련기사 링크: <http://www.cinic.org.cn/hy/zh/1585373.html>

■ 중국 4월 경제 성적표 발표...거대 압력 속에서도 안정 성장

- 올해 4월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내부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생산, 서비스업, 소비, 무역, 고용 등 주요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신화사(新华社)는 전했다.
- **산업 생산 빠른 성장...장비 제조업 및 첨단기술 제조업의 두드러진 성장.** 4월 일정 규모 이상(주요) 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특히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이 각각 9.8%, 10% 성장하며,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서비스업 안정 성장, 현대 서비스업 강세...장비 제조업 및 첨단기술 제조업의 두드러진 성장.** 4월 전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도매소매업, 금융업의 생산지수는 각각 10.4%, 8.9%, 6.8%, 6.1%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 **소비·투자 확대, 내수 시장 회복 지속...4월 사회소비품 총판매액은 3조 717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0.24% 성장했다.** 1~4월 고정자산 투자(농가 제외)는 14조 7024억 위안으로 4% 증가했으며,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제외하면 8% 성장해 투자 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였다.
- **화물 수출입 증가세 지속, 무역 구조 최적화...4월 중국의 화물 수출입 총액은 3조 839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수출은 9.3% 성장하며 호조를 이어갔고, 수입도 0.8% 증가해 무역 균형이 개선되고 있다.

- **고용 안정·물가 소폭 하락**...1~4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 평균치는 5.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4월 실업률은 5.1%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으나, 전월 대비 0.1% 상승해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보였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xinhuanet.com/fortune/20250520/f12bece835054a1083a44eff6bbf933f/c.html>

■ 中 정부 내수 활성화 총력전, 건강·스포츠·외식·관광 분야 확대

-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건강, 스포츠, 외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건강소비 촉진 특별 행동방안」을 통해 건강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금융지원과 특별기금을 통해 산업 성장을 도모하며, 상하이의 '즐거운 상하이' 소비쿠폰과 중앙정부의 '중국에서 쇼핑하기' 캠페인 등 구체적인 소비 촉진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종합적 소비 진작 정책들은 각 분야의 매출 증가와 소비자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산업은 2024년 9조 위안 규모에서 2030년 16조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건강소비 분야의 정책 지원:** 최근 상무부(商务部)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건강소비 촉진 특별 행동방안」은 건강소비를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식이, 영양, 운동, 심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정의했음. 「건강소비 촉진 특별 행동방안」은 건강식품 소비 수준 제고, 특수식품 시장 공급 최적화, 피트니스·운동 소비 환경 개선,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실버마켓 서비스 역량 강화, 새로운 건강서비스 발굴, 건강산업의 다원화된 발전 유도, 약국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 건강소비 촉진 활동 조직, 건강이념 및 지식 보급 등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음.

- **스포츠 산업 분야의 소비 활성화 전략:**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등 4개 부처는 「스포츠 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지도의견」을 공동 발표하고, 스포츠 용품 제조업과 스포츠 서비스업 등 분야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해당 지도의견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프로스포츠 구단 설립과 육성 수요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 구단 투자 및 용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설 개조 및 보조 서비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함. 또한 스포츠 발전 특별기금 설립을 권장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사회조직에 프로젝트 보조금, 이자 할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용자 비용 절감을 도모함.
- **외식·관광 분야의 종합적 소비 촉진 정책:** 상하이시는 서비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즐거운 상하이(乐品上海)'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있음. 소비쿠폰은 유니온페이(UnionPay),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 Pay) 등 온라인 결제 앱을 통해 배포되며 온라인 신청 후 추첨 방식으로 당첨 소비자를 선정함.
- 한편, 상무부는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체육총국(体育总局) 등 6개 부서와 공동으로 하이난(海南) 제5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에서 '중국에서 쇼핑하기(购在中国)' 캠페인을 추진함. 이 캠페인은 서우파 경제(首发经济, 처음으로 선보여 소비와 혁신을 이끄는 경제활동), 고품질 쇼핑, 미식, 관광, 전시공연 등 4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첫 출시, 첫 시연, 첫 전시, 첫 공연 등 '첫' 관련 이벤트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함.

※ 관련기사 링크: <https://mp.weixin.qq.com/s/rtrv2giBnypL8piKqNy5gA>